

‘귀한 대접’ 강진 쌀귀리 수매 시작

보리보다 2배 높은 가격...치매 예방 ‘대양’ 품종 등을 2000t 수확 35억 매출 기대

최고품질의 강진군 쌀귀리 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온화한 기상여건으로 추위에 약한 쌀귀리 재배 적지로 알려진 강진군은 2008년부터 꾸준한 쌀귀리 재배 기술 및 면적 확대로 전국 최고품질·최대면적의 전진기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약 250여 농가가 계약재배로 약 700ha의 면적에서 쌀귀리 수확을 마쳤다.

강진군에서 재배되는 쌀귀리 품종은 대부분은 ‘조양’ 품종이지만, 최근 ‘대양’ 품종에서 치매 예방 물질인 Avn-C(아베난스라마이드) 성분이 조양보다 11.9배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양’ 재배 면적을 늘려 올해는 약 20ha에서 시범 재배했다.

특히, 지난해 국비사업인 ‘가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 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대양’ 품종 이용 확대와 가공 제품화를 위한 원료곡 안정 생산의 기반을 조성했다.

군은 올해 유례없는 가뭄과 4월 이상 기온으로 수매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비 16.6% 오른 금액으로 수매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쌀귀리는 보리에 비해 소득이 2배 높은 고소득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올해 약 2000 t,



강진군의 한 농가에서 쌀귀리 수확이 한창이다.

<강진군 제공>

약 35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최고품질의 쌀귀리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품질 재배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며 “쌀귀리를 이용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 많은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로 강진 쌀귀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쌀귀리 국수 개발을 시작으로 고추장·선식·떡·빵·조청, 침출차 등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시식단을 모집해 쌀귀리의 맛과 영양을 보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쌀 판매촉진 운동 추진

오늘부터 ‘함평천지물’서

함평군이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최근 경기침체 및 소비둔화로 2021년산 쌀 가격 하락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공직자, 농협 및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함평쌀 판매촉진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 함평군 농특산물 쇼핑몰 ‘함평천지물’을 통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단체구매 및 대규모 공급처의 경우 함평군 친

환경농산과 농산물만족팀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새청무 단일 품종미인 ‘우렁색시미’와 ‘신동진미’는 10kg 2만6000원, 20kg 4만8000원에 할인 판매되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함평나비쌀’은 10kg 3만7000원, 20kg 7만원에 판매된다.

20포(20kg 기준) 이상 구매하거나 대량 구매처를 확보한 직원을 대상으로 현물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함평천지물’ 구매 고객에게는 신규 가입자 5000원 쿠폰 및 구매 금액의 5%를 적립하는 이벤트 등도 마련돼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소방안전교육에 음악 입혔어요”

나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음악봉사단 운영

나주소방서(서장 박용주)가 나주시 의용소방대 음악봉사단을 운영한다.

의용소방대 음악봉사단은 특색있고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봉사하자는 대원들의 뜻이 모여 결성됐다.

대원들은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강사와 같은 소방안전교육에 특화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들로 오카리나, 팬플루트, 통기타 등 음악에 소질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 음악봉사단은 지역 요양병원, 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돌며 소방안전교육에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또 음악봉사단은 나주시 주관 2022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안전한 마을 환경 만들기’ 분야에 당선됐다. 사업 보조금은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도 활용된다고 밝혔다.

대원들은 평소 생업과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전념하면서 저녁시간 틈틈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모여 연습하며 실력을 기우고 있다.

류정자 남평읍 여성의용소방대장은 “힘든 내색 없이 밝은 모습으로 연습에 임한 대원들이들로 오카리나, 팬플루트, 통기타 등 음악에 소질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됐다.”

박용주 나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음악봉사단의 작은 울림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큰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급속한 도시화’ 장흥읍 하수처리 ‘골머리’

공동주택 1200여 세대 시행사, 공공처리시설 증설 요구 군 “1000억 증설비용에 정상가동까지 4~5년 소요” 난색

농어촌 먼단위 마을들이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읍소재지는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하수처리 생활인원이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현재 읍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처리용량은 1일 4024t으로 장흥읍공공하수처리장(BTO) 용량(4400t)의 91%에 달해 처리 한계수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먼단위 마을은 노령인구만 남은 반면 읍소재지는 인구 유입 등으로 주거환경이 도시화하면서 생활하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읍소재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신축허가 1138세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970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돼 공동주택측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형편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럴 경우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잦은 고장(이물질 제거), 내구연한(15년)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을 입주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시행사 측은 아파트공사과정 이 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2~3년 소요된

점을 감안해 행정당국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증설해 배수설비와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하수도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하수물량 970t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하수도법상 막대한 증설비용(1000억원 상당)은 공동주택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기본계획변경용역(1년), 신규사업선정(1년), 하수처리장 공사기간(2년) 등 정상가동까지 4~5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19년 7월 수립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12억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장흥읍 외곽 8개마을 하수처리에 대한 증설공사를 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확대

화순군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군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일정

금액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였지만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인 세대 13만

7200원(기준 10만35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기준 14만6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기준 18만45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기준 20만9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3년 4월 30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휴가철 계곡 무단 점유·훼손 특별 단속

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